

수단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따른 취학전 아동의 도덕판단*

정 영 숙

조 영 미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취학전 아동의 도덕판단은 주로 행위자의 의도와 행위 결과의 상대적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덕판단에서 수단적 행위의 정당성이 갖는 중요성을 지적하고, 어린 아동들이 얼마나 일찍부터 정당한 수단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도덕판단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3세, 4세, 및 5세 남·여 아동 60명을 대상으로 수단의 정당성 여부(2)와 결과 유형(2)을 조합한 네 가지 이야기를 아동에게 제시하고, 각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얼마나 착한지 또는 나쁜지 그리고 상이나 벌을 얼마나 주어야 할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3세 아동들은 결과에 관계 없이 정당한 수단을 동원한 행위는 착하고 상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반면, 나쁜 수단을 동원한 행위는 결과에 관계없이 나쁜 것이고, 벌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세 아동과 5세 아동의 반응도 3세 아동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결과는 3세 아동들도 도덕판단에서 정당한 수단을 동원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잘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 : 수단행위, 정당한 수단, 도덕판단, 취학전 아동

본 연구는 취학전 아동의 도덕판단 발달을 의도와 결과 중심으로 살핀 시각에 변화가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도덕판단에서 행위의 수단적 정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과 아울러, 어린 아동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된 행위의 정당성을 고려하여 도덕판단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얼마

나 일찍부터 정당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Freud(1933/1968)와 Skinner(1971)가 개인의 욕구나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으로서의 도덕에 관심을 두는 것에 반하여, Piaget(1932)와 Kohlberg(1963, 1969)는 도덕의 통제 기능보다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 정영숙, E-mail: yschoong@pusan.ac.kr

는 사회적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관계, 규칙, 사회제도에 관한 지식과 판단을 도덕성을 이해하는데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발달적 관심은 다양한 도덕적 규칙(정의, 협동, 인간의 존엄성 등)에 대한 개념화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있다. 즉, 도덕발달에 관한 인지이론가들은 도덕적 규칙에 대한 개념화 방식에서의 질적 변화에 관심을 두고, 연령에 따라 개인의 도덕판단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관심을 둔다.

Piaget와 Kohlberg의 이론에 따르면, 취학전 아동의 도덕판단 양상은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 먼저, Piaget(1932)에 의하면, 8세 이하의 아동들은 정해진 규칙이나 정의는 변하지 않는 것이며,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타율적 도덕성 (heteronomous morality)을 보이며, 행위의 옳고 그름을 행위의 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한다는 것이다. Kohlberg(1969)의 이론에 의하면, 취학전 아동들은 주로 외적인 보상이나 벌에 근거하여 전인습적인 도덕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른에게 복종하고 처벌받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이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나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Piaget와 Kohlberg의 제안을 종합하면,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취학전 아동의 판단은 행위의 결과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취학전 아동이 보이지 않는 의도보다는 관찰하기 용이한 결과를 근거로 도덕판단을 한다는 주장은 전조작기에 속하는 아동이 눈에 보이는 정보에 의존하고 여러 정보 중 어느 하나의 정보에만 치중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주장과 일치한다(Flavell, Miller,

& Miller, 2002).

Piaget의 제안 이후, 취학전 아동이 도덕판단에서 정말로 의도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는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다(Chandler, Greenspan, & Barenboim, 1973; Gutkin, 1972; Hebble, 1971; MacRae, 1954; Peterson, Peterson, & Finley, 1974). 일부 연구들은 결과정보와 의도정보를 체계적으로 조합하여 제시하거나 (Costanzo, Coie, Grumet, & Farnill, 1973; Rule & Duker, 1973), 부정적 결과뿐만 아니라 긍정적 결과도 제시하여(김시은, 정영숙, 2000; Costanzo et al., 1973; Nelson, 1980), 결과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때 의도가 선한 경우와 나쁜 경우 간에 아동의 도덕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취학전 아동들도 행위자의 의도를 고려한 도덕판단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김시은, 정영숙, 2000; Armsby, 1971; Baldwin & Baldwin, 1970; Costanzo et al., 1973; Nelson, 1980; Nelson-Le Gall, 1985).

도덕판단에서 의도정보를 중시하는 것에는 도덕적 책임을 논하려면 그 행위가 의도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노영란, 2002 (pp.103-108); Shultz, 1980).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르고 한 실수나 반사적으로 한 행동 또는 우연히 발생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 4~6세 아동들은 고의로 부정적 결과를 유발한 행위자를, 모르고 부정적 결과를 유발한 행위자보다 더 나쁘다고 판단하였고 (Armsby, 1971; Farnill, 1974; Nelson-Le Gall, 1985), 의도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그러지 않을 때보다 더 착하다고 판단하여(Nelson-Le Gall, 1985), 도덕판단시 결과뿐만 아니라 의도도 고려함을 보여주었다.

Piaget(1932)가 제안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린 아동들이 결과뿐만 아니라 의도도 고려하여 도덕판단을 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던 것에는 후속 연구들이 Piaget가 사용한 과제의 문제점을 여러 측면에서 보완했기 때문이었다. 아동이 의도정보를 사용하는지 또는 의도정보에 비중을 두는지를 알려면, 결과가 일정한 경우(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도가 선한지 악한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그런데 Piaget의 과제에서는 언제나 선한 의도에서 크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고 나쁜 의도에서는 아주 작은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여, 의도정보와 결과정보가 동시에 달라져 어린 아동이 두 가지 모순된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의도정보와 결과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면, 결과정보도 다양해야 한다. 즉, 도덕판단 과제에 부정적 결과뿐만 아니라 긍정적 결과도 포함되어야 한다. 아주 부정적이고 심각한 결과는 취학전 아동들에게 지각적으로 두드러진 정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Kohlberg의 처벌지향적 단계에 있는 취학전 아동들에게 심각한 부정적 결과의 발생은 처벌과 쉽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의도를 압도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도덕판단을 연구할 경우에는 Piaget식 과제에서 사용된 부정적 결과나 Kohlberg식 과제에서 사용된 부당한 수단(Heinz이야기에서 약을 훔친 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선한 의도와 나쁜 의도,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들이 포함된 과제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덕판단에 관한 연구들은 행위자의 의도와 그 행위의 결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도덕적 판단을 하는 데에는 의도와 결과 이외에 어떤 수단을 사용하였는지도 중요하다. 어떤 행위가 도덕적이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하는 동기, 즉 의도가 선해야 하지만 선한 의도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선택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절차의 결과와 절차 자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노영란, 2002, pp.110-116). 부모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장학금을 받고 싶은 학생이 부정행위를 통해 성적이 향상된다고 해서, 그 부정행위를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선택의 합리성은 그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선택을 하는 과정을 참고해야 한다(Mullen & Roth, 1991. 노영란(2002)에서 재인용).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싶고, 인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자가 되고 싶은 것처럼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나 의도는 대부분 좋게 시작된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종종 부당한 수단이나 편법이 동원된다. 그리고 편법이나 부당한 수단이 발각되지 않으면 개인은 기대하는 긍정적 결과를 얻기도 한다. 그러나 부당한 수단이 드러나게 되면 그 결과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표적인 예가 2004년 수학능력시험에서 드러난 청소년들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시험부정행위이다. 이들의 부정행위는 휴대폰을 이용한 방법과 대리시험을 이용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행위의 경우, 시험 전날 합숙하면서 실수없이 부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행연습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대리시험의 경우에는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을 바꿔 수험생 대신 다른 사람이 시험을 치루기도 하였다. 부정행위에 참가한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해드리려고”하는 나름의 좋은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당한 수단을 동원한 이들의 행위는 자신과 사회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부당한 수단을 사용한 결과 개인과 사회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또 다른 예는 황교수 사건이다. 한때 전 국민의 우상이었던 한 과학자의 조작된 자료에 의한 논문 발표는 개인적 명예와 아울러 한국과학자들의 위상을 엄청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과학자 역시 자신은 “난치병 환자들을 고치기 위해, 그리고 한국 과학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노라고 변명하기도 하였다. 일을 시작한 의도가 선함에도 불구하고, 연구 조작이라는 잘못된 수단의 사용은 과학의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로서 과학자의 도덕적 타락으로 규정되고 있다(연합뉴스, 2005. 8월 20일자). 위의 예들은 선한 의도로 그 행위의 도덕성을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음과, 행위의 도덕적 판단에는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수단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실적 삶에서 수단적 행위의 정당성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덕성 연구에서 수단의 정당성에 대한 고려는 거의 배제되어 왔다. 물론 Kohlberg(1963, 1969)가 사용한 도덕적 딜레마가 부정적 수단을 다루

고 있지만(예, Heinz의 이야기에서 죽어가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약을 훔치는 것), 수단의 정당성 여부와 의도의 선함, 그리고 결과에 대한 체계적 고찰은 아니었다. Kohlberg는 개인이 추구해야 할 많은 규칙들이 있고, 이 규칙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예,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 대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어떤 논리를 근거로 어느 규칙을 더 중시하는가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우리는 행위가 옳고 그름을 여러 가지를 근거로 판단한다. 때로는 행위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때로는 행위로 발생한 결과를 중심으로, 그리고 때로는 목적을 위해 사용된 절차(수단)가正当한지를 따지기도 한다. 어떤 행위가 온전하게 도덕적이 되려면, 선한 의도에서 정당한 수단이 동원되고, 그 결과가 바람직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겨난다.

의도(intention)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와 실제 행동을 인과적으로 매개하는 내재적인 마음의 상태로서 앞으로 할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행동 이전 상태를 말한다(Flavell, Miller, & Miller, 2002). 따라서 의도는 결과와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내재적 특성이 된다. 즉, 좋은 의도에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나쁜 의도에서 긍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의도와 결과가 독립된 것과 마찬가지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된 행위(수단)도 의도나 결과와 구분되어야 한다. 선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된 행위가 정당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정당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수단을 동원했지

만 결과가 긍정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행위자가 착한지 나쁜지에 대한 판단에는 행위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이외에 정당한 수단이 동원되었는지도 판단의 중요한 한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노영관, 2002; Mullen & Roth, 1991; Rescher, 1988).

그런데 지금까지 취학전 아동의 도덕판단 발달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아동이 행위의 결과에 근거한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 행위자의 의도를 고려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가 중심이 되어 왔다(Chandler, Greenspan, & Barenboim, 1973; Gutkin, 1972; Hebble, 1971; MacRae, 1954; Peterson, Peterson, & Finley, 1974). 이는 어린 아동의 도덕판단에서 논란이 된 쟁점이 Piaget(1932)의 주장처럼 도덕을 외부에서 주어질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취학전 아동이 행위자의 의도를 고려한 도덕판단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도덕판단에 관한 연구를 정리해 보면, 의도와 결과를 조합한 도덕판단 과제에서 의도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3세로 볼 수 있다(김시은, 정영숙, 2000; Nelson, 1980; Zelazo, Helwig, & Anna, 1996). 아동의 마음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3~4세 쯤 아동에게 의도개념이 발달하고 타인의 욕구나 정서를 추론하고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발달적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Shultz, 1980; Wellman, 1990). 이를 고려해 볼 때, 정당한 수단에 대한 인식이 3세 아동에게도 가능한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덕판단에서 의도 정보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된 최소 연령인 3세 아동을 포함하여, 4세와 5세 아동을 대상

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라도 정당한 수단을 동원한 행위를 부당한 수단을 동원한 행위에 비해 더 착하다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더 상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어린 아동이 도덕판단에서 수단행위의 정당성을 고려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도덕판단 측정을 위해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하였다. 하나는 행위자가 얼마나 착한지(또는 얼마나 나쁜지)였고 다른 하나는 행위자에게 상을(또는 벌을) 얼마나 부여하는지였다.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착한지 나쁜지 판단할 때에는 의도가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다. 즉, 선한 의도로 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약간의 고통을 주더라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상/벌은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발생한 결과에 근거하여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

선행 연구를 보면, 착하다/나쁘다 판단과 상/벌 판단 양상에서 서양 아동과 한국 아동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Zelazo, Helwig, 및 Anna(1996)의 연구에서는 3세 아동이 주인공이 착한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상벌 판단에서는 의도정보에 따른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반면에 한국의 3세 아동들은 착하다/나쁘다 판단과 상/벌 판단 모두에서 의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한국의 3세 아동은 선한 의도로 긍정적 결과를 초래한 행위자를 착하다고 판단하였고, 상도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나쁜 의도로 긍정적 결과를 초래한 주인공은 나쁘다고 판단하였고, 벌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김시은, 정영숙, 2000).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단의 정당성에 따라 아동의 착하다/나쁘다 판단과 상/벌 판단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에게 두 가지 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부산시내 중류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유치원에 다니는 3세(평균연령: 3세 6개월), 4세(평균연령: 4세 8개월), 5세(평균연령: 5세 6개월) 남, 여 아동 60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각 집단은 20명으로 남자와 여자 각각 10명이었다.

도덕판단에 사용된 이야기의 구성

아동의 정당한 수단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수단의 유형(정당한 수단 대 부당한 수단)과 결과 유형(긍정적 결과 대 부정적 결과)에 따라 네 가지 이야기가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이야기 속 주인공의 의도는 모두 좋은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수단이 정당한 것인가를 따지는 상황이 의도는 좋은데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단적 행위의 정당성을 살펴려는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행위자의 의도가 좋은 상황을 설정한 후, 수단이 정당하면서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와 부정적일 경우,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서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와 부정적일 경우의 4 가지 종류의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몇몇 3세 아동을 관찰한 결과, 이 연령의 아동들이 자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장난감을 이용한 상황을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정당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로 우는 친구를 달래기 위해 자신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상황을 구성하였고, 부당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로는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아 우는 친구를 달래는 상황을 구성하였다. 긍정적 결과는 장난감을 준 결과 친구가 울음을 그친 것이었고 부정적 결과는 친구가 계속 우는 것이었다. 아동에게 제시된 네 가지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모두 우는 친구를 달래주려는 좋은 의도를 가진 주인공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정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가 발생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는 울고 있는 친구를 보고 친구를 달래주고 싶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아끼는 장난감을 친구에게 주었다. 그랬더니 친구가 울음을 뚝 그쳤다(또는 그렇지만 친구는 계속 울었다).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가 발생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는 울고 있는 친구를 보고 친구를 달래주고 싶었다. 그래서 다른 친구가 제일 아끼는 장난감을 빼앗아 친구에게 주었다. 그랬더니 친구가 울음을 뚝 그쳤다(또는 그렇지만 친구는 계속 울었다).

절차

본 실험은 아동들이 다니는 유치원의 원장실과 상담실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한 아동당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25분 정도였다. 실험은 동일한 훈련을 받은 두 명의 실험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먼저 아동이 실험실에 들어오면, 간단하게 라포를 형성한 후, 아동에게 정당한 수단 여부(2)와 결과 유형(2)에 따른 네 가지 이야기를 하나씩 제시하고, 각 이야기별로 질문을 하였다. 어린 아동들이 각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도록 실험자는 각 이야기 상황과 일치되는 그림 장면을 아동에게 제시하면서 상황을 설명해주었다. 하나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아동에게 제시되는 이야기 순서는 연령별로 평형화(counterbalance)하였다.

아동에게 각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이야기 속의 친구는(울고 있는 친구) 무엇을 하고 있나요?”, “()는 친구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하나요?”(이야기 속 주인공의 의도 확인), “()는 친구를 달래려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이야기 속 주인공이 사용한 수단에 대한 이해 확인), “그래서 울고 있던 친구는 어떻게 되었나요?”(행위의 결과 이해 확인), 등으로 아동이 제시된 이야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아동이 각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 확인이 되면, 실험자는 아동에게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 첫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착한지 나쁜지, 착하다면(또는 나쁘다면) 얼마나 착한지(또는 나쁜지)를 4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도덕성 판단). 구체적으로 아동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을 착하다고 응답하는 경우, 아동들이 얼마나 착한지를 평가하는 4점 척도는 활짝 웃는 얼굴을 사용하

여 아동들에게 시각적으로 제시되었는데, 매우 착하다(3점)는 웃는 얼굴의 지름이 8cm이었고, 착하다(2점)는 웃는 얼굴 지름이 7cm이었고, 조금 착하다(1 점)는 웃는 얼굴 지름이 6cm이었다.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다(0점)는 얼굴 지름이 5cm이었고 표정이 없는 얼굴이었다. 매우 착하다 쪽으로 갈수록 활짝 웃는 정도가 더 컸다.

아동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을 나쁘다고 응답하는 경우에는, 찡그린 표정을 사용하여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매우 나쁘다(-3점)는 찡그린 표정의 얼굴 지름이 8cm이었고, 나쁘다(-2점)는 찡그린 얼굴의 지름이 7cm, 조금 나쁘다(-1점)는 찡그린 얼굴의 지름이 6cm이었다. 나쁘지도 착하지도 않다(0점)는 얼굴 지름이 5cm로 표정이 없는 얼굴이었다. 매우 나쁘다 쪽으로 갈수록 찡그린 표정이 더 컸다.

아동에게 제시된 두 번째 질문은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상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벌을 받아야 할지 물었다. 이어 아동에게 주인공이 상을 받아야 한다면(또는 벌을 받아야 한다면) 어느 정도 상을 받아야 할지(또는 어느 정도 벌을 받아야 할지) 판단하게 하였다(상/벌 판단). 상/벌 부여는 스티커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상을 주어야 할 경우에는 초록색 스티커를, 벌을 주어야 할 경우에는 빨간색 스티커를 각 이야기 속의 주인공을 나타내는 그림 아래에 붙이도록 하였다.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상·벌의 최대 개수는 다섯 개이었다.

착하다/나쁘다 판단과 상/벌 판단이 끝난 후에, 참고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 한 질문은 수단적 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 착한

지 또는 나쁜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는 어린 아동들이 정당한 수단과 부당한 수단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아동들에게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 왜 상을(또는 벌을) 주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물었는데, 이는 상과 벌을 주는 이유를 통해 아동들이 도덕판단에서 의도나 결과를 중시하는지 아니면 수단의 정당성 여부를 중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결 과

수단의 정당성 여부와 결과 유형에 따른 아동들의 도덕성(착하다/나쁘다) 판단

먼저 수단의 정당성 여부(정당한 수단 대 부당한 수단)와 결과 유형(긍정적 결과 대 부

정적 결과)에 따라 주인공을 착하다(나쁘다)고 응답한 아동의 수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을 보면, 이야기 속 주인공이 사용한 수단이 정당하고, 행위의 긍정적일 경우, 3세 아동과 4세 아동 그리고 5세 아동 60명 모두 그 주인공을 착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야기 속 주인공이 사용한 수단이 정당하였으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에도 대부분의 아동(60명 중 58명)은 그 주인공을 착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동들(60명 중 55명)이 주인공을 나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긍정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아동들(60명 중 56명)이 주인공을 나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모든 연령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3세, 4세 그리고 5세 아동은 모두 정당한

표 1. 수단의 정당성 여부와 결과 유형에 따라 주인공을 착하다(나쁘다)고 응답한 3, 4, 5세 아동의 수

연령	결과 유형			
	긍정적		부정적	
	정당한 수단	부당한 수단	정당한 수단	부당한 수단
3세 (n=20)	20(0) ^a	2(18)	19(1)	2(18)
4세 (n=20)	20(0)	1(19)	19(1)	2(18)
5세 (n=20)	20(0)	1(19)	20(0)	1(19)
전체	60(0)	4(56)	58(2)	5(55)

^a ()안에 있는 수치는 해당 이야기 속 주인공을 나쁘다고 응답한 수입

표 2. 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결과 유형에 따른 아동의 도덕성판단(착하다/나쁘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	결과 유형			
	긍정적		부정적	
	정당한 수단	부당한 수단	정당한 수단	부당한 수단
3세 (n=20)	2.65 ^a (.75)	-1.75 ^b (1.65)	2.20 (1.24)	-1.65 (1.93)
4세 (n=20)	2.80 (.70)	-1.95 (1.43)	1.95 (1.47)	-1.70 (1.66)
5세 (n=20)	2.95 (.22)	-1.90 (1.48)	2.50 (.69)	-1.75 (1.55)
전체	2.80 (.61)	-1.87 (1.50)	2.22 (1.18)	-1.70 (1.69)

^a 3에 가까울수록 더 착하다고 판단한 것임. 최고 점수는 3임

^b -3에 가까울수록 더 나쁘다고 판단한 것임. 최고 점수는 -3임

수단을 사용한 행위는 결과에 관계없이 모두 착한 것으로, 부당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는 결과에 관계없이 모두 나쁜 것으로 판단하였다.

3세, 4세, 및 5세 아동들이 수단의 정당성 여부와 결과 유형에 따라 이야기 속 주인공이 얼마나 착한지 또는 나쁜지 평정한 값(도덕성 판단)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아동의 도덕성판단에 관한 변량분석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연령은 집단간 변인이었고, 수단의 정당성 여부와 결과의 유형은 집단내 변인이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은 정당한 수단을 동원한 주인공은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 착하다고

평가한 반면, 부당한 수단을 동원한 주인공은 모두 나쁘다고 평가하였다. $F(1, 57) = 446.47, p < .001$. 그런데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를 부정적일 경우보다 조금 더 착하다고 평가하였으나, 부당한 수단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결과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쁘다고 평가하여, 수단의 정당성과 결과 유형 간에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F(1, 57) = 8.31, p < .01$. 이 상호작용 효과는 수단이 정당할 경우와 부당할 경우에 따라 결과 유형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다. 즉, 3세, 4세 및 5세 아동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수단이 정당하고 결과가 좋은 경우는 수단이 정당하고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보다 주인공을 더욱 착하다고 판단한 반면에, $t(59) = 3.87, p < .001$, 수단이 부당할 경우에는 결과의 좋고 나쁨에 따라 평가가 다르지 않았다.

아동의 도덕성판단에 관한 변량분석 결과는 3세 아동들도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정당한 수단의 사용 여부를 잘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 판단에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도덕판단에서 결과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주인공이 부당한 수단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결과에 관계없이 모두 비슷하게 나쁘다고 평가하여, 결과보다는 부당한 수단을 사용했다는 것을 더 중시함을 알 수 있다. 즉, 수단정보, 결과정보, 및 의도정보가 조합된 본 연구에서 아동들이 내린 도덕성 판단 결과는 어린 아동들이 도덕판단에서 수단의 정당성 여부를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종합적 판단이 수단행위 자체에 대한 구분에서 나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3세,

표 3. 행위 정당성 여부와 결과 유형에 따른 아동의 도덕성 판단에 관한 변량분석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값
집단간				
연령(A)	1.23	2	.61	.26
오차	132.49	57	2.32	
집단내				
수단(B)	1105.10	1	1105.10	446.47***
A×B	2.06	2	1.03	.42
오차	141.09	57	2.48	
결과(C)	2.60	1	2.60	2.14
A×C	.26	2	.13	.11
오차	69.39	57	1.22	
B×C	8.44	1	8.44	8.31**
A×B×C	.93	2	.46	.46
오차	57.89	57	1.02	

* $p < .05$ ** $p < .01$ *** $p < .001$

표 4. 네 가지 이야기에 사용된 수단행위에 대한 연령별 도덕성 판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	결과 유형			
	긍정적		부정적	
	정당한 수단	부당한 수단	정당한 수단	부당한 수단
3세(n=20)	.90 ^a (.31)	-1.65 ^b (1.87)	1.80 (1.70)	-1.55 (1.57)
4세(n=20)	2.25 (.85)	-1.60 (1.82)	2.00 (1.12)	-1.10 (1.86)
5세(n=20)	2.85 (.37)	-2.15 (1.39)	2.35 (.67)	-1.70 (1.53)
전체	2.00 (.99)	-1.80 (1.70)	2.05 (1.24)	-1.45 (1.65)

^a 3에 가까울수록 더 착하다고 판단한 것임. 최고 점수는 3임

^b -3에 가까울수록 더 나쁘다고 판단한 것임. 최고 점수는 -3 임

4세, 및 5세 아동들에게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사용한 수단이 얼마나 착한지/나쁜지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야기 속 수단행위에 대한 아동의 착하다/나쁘다 판단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들은 정당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착하다고 응답하였고,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나쁘다고 응답하여, 정당한 수단과 부당한 수단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F(1, 57) = 799.35, p < .001$.

수단의 정당성 여부와 결과 유형에 따른 아동들의 상/벌 부여 판단

표 5에는 이야기 속 주인공들에게 상과 벌을 부여한 아동의 수가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3세, 4세, 및 5

세 아동들은 이야기 속 주인공이 정당한 수단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상을 주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부당한 수단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벌을 주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정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에는 60명 전원이 상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결과가 부정적일 때에는 소수의 인원(4명)이 벌을 주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부당한 수단을 사용한 주인공들에게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벌을 주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일부는 상을 주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특히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에는 9명이나 상을 주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어릴수록 그 수가 조금 많았다(3세는 4명, 4세는 3명, 5세는 2명임).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에도 상을 주어야 한다고 응답한 아동이 6명이나 있었다.

표 5. 수단의 정당성과 결과 유형에 따라 상(벌)을 부여한 아동의 수

연령	결과 유형			
	긍정적		부정적	
	정당한 수단	부당한 수단	정당한 수단	부당한 수단
3세(n=20)	20(0) ^a	4(16)	19(1)	3(17)
4세(n=20)	20(0)	3(17)	18(2)	2(18)
5세(n=20)	20(0)	2(18)	19(1)	1(19)
전체(n=60)	60(0)	9(51)	56(4)	6(54)

^a ()안에 있는 수치는 해당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 벌을 주어야한다고 응답한 수임

표 6. 수단의 정당성과 결과 유형에 따른 아동의 상/벌 부여 정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	결과 유형			
	긍정적		부정적	
	정당한 수단	부당한 수단	정당한 수단	부당한 수단
3세(n=20)	3.90 ^a (1.44)	-2.80 ^b (3.27)	3.95 (2.30)	-2.70 (3.26)
4세(n=20)	3.90 (1.11)	-2.80 (2.91)	3.80 (1.67)	-2.75 (2.67)
5세(n=20)	4.60 (.75)	-3.15 (2.60)	4.10 (1.65)	-3.35 (2.32)
전체	4.13 (1.17)	-2.92 (2.89)	3.95 (1.87)	-2.93 (2.74)

상의 경우와 벌의 경우 각각 5점 척도 상에서 평정된 값임.

^a +5점 쪽으로 갈수록 상을 많이 준 것을 의미.

^b -5점 쪽으로 갈수록 벌을 많이 준 것을 의미.

표 6에는 3세, 4세, 및 5세 아동들이 각 이야기 속의 주인공에게 부여한 상/벌 정도의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아동의 상/벌 부여에 관한 변량분석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연령은 집단간 변인이고, 수단의 정당성 여부와 결과 유형은 집단내 변

표 7. 수단의 정당성과 결과유형에 따른 아동의 상/벌 부여에 대한 변량분석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값
집단간				
연령(A)	.11	2	.05	.01
오차	419.58	57	7.36	
집단내				
수단(B)	2912.07	1	2912.07	355.91***
A×B	12.06	2	6.03	.74
오차	466.38	57	8.18	
결과(C)				
결과(C)	.60	1	.60	.21
A×C	1.98	2	.99	.35
오차	159.93	57	2.81	
B×C				
B×C	.42	1	.42	.14
A×B×C	.16	2	.08	.03
오차	167.93	57	2.95	

* $p < .05$ ** $p < .01$ *** $p < .001$

인이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들은 정당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결과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상을 부여하였고, 부당한 수단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결과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비슷한 정도로 벌을 부여하여, 수단의 정당성에 따라 상/벌 부여가 다르게 나타났다, $F(1, 57) = 355.91, p < .001$. 상/벌을 부여하는데 연령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7참조).

표 8과 9에는 3세, 4세, 및 5세 아동이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 상이나 벌을 주어야 할 이유에 대한 응답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상을 주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야기 속 주인공이 친구를 달래기 위해 자신이 아끼는 장난감을 주었기 때문에 상을 주어야 한다고 응답한 아동이 가장 많았다(전체 60명 중 42명). 이것은 특히 5세 아동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20명 중 17명). 또한 정당한 수단을 사용했으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에도 주인공이 자신이 아끼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상을 주어야 한다고 응답한 아동들이 많았다(전체 56명 중 45명). 이 반응들은 어린 아동들이 정당한 수단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9에서 나타나듯이, 3세, 4세, 및 5세 아

표 8. 상을 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3세, 4세, 및 5세 아동의 항목별 반응 수

응답유형	정당한 수단의 긍정적 결과			정당한 수단의 부정적 결과		
	3세 (n=20)	4세 (n=20)	5세 (n=20)	3세 (n=19)	4세 (n=18)	5세 (n=19)
친구를 달래기 위해서니까	4	4	3	2	2	0
친구달래기 위해 아끼는 장난감을 주었기 때문에	12	13	17	11	15	19
울음을 그치게 해서	0	1	0	0	0	0
잘 모르겠다	2	0	0	3	1	0
무응답 및 기타	2	2	0	3	0	0

표 9. 벌을 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3세, 4세, 및 5세 아동의 항목별 반응 수

응답유형	부당한 수단의 긍정적 결과			부당한 수단의 부정적 결과		
	3세 (n=16)	4세 (n=17)	5세 (n=18)	3세 (n=17)	4세 (n=18)	5세 (n=19)
다른 친구 장난감을 빼앗아서	12	16	18	13	18	19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	0	0	0	2	0	0
잘 모르겠다	4	1	0	2	0	0

동에게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 왜 벌을 주어야 하는가를 질문했을 때, 많은 아동들이 그 주인공이 다른 친구의 장난감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에 전체 응답자 54명 중 50명이 친구의 장난감을 빼앗았기 때문에 벌을 주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에도 부당한 수단을 동원한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 51명 중 46명이 친구의 장난감을 빼앗았기 때문에 벌을 주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상이나 벌을 주어야 하는 이유 분석을 통해 어린 아동들은 상을 주는 것에서도 벌을 주는 것에서도 주인공이 정당한 수단을 동원했는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논 의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도덕에 관한 연구들

을 살펴보면, 첫째, 도덕판단 단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이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이상이었음)(김상윤, 1989; 김안중, 박천환, 신재철, 조난심, 1982; 백혜정, 이순목, 2004), 둘째, 도덕적 규칙과 인습적 규칙의 구분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이들 연구대상은 4세 이상이었음)(김진아, 엄정애, 2006; 박영신, 1999, 2001; 최보가, 송미화, 1996), 셋째, 도덕적 정서에 초점을 두고 있다(이들 연구대상은 초등학생 이상이었음)(김경연, 하영희, 2003; 김경희, 1999, 2004, 2006).

우리나라의 3세의 아동들 대상으로 도덕판단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본 연구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3세, 4세 또는 5세의 취학전 아동이 의도를 고려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김시은, 정영숙, 2000; Armsby, 1971; Baldwin & Baldwin, 1970; Costanzo, Coie, Grumet, & Farnill, 1973; Nelson, 1980; Nelson-Le Gall, 1985),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이 도덕판단에서 중요한 수단에 대한 인식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개인이 선택한 수단이 도덕성을 규정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이 윤리학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졌지만(김기상, 1997; 노영란, 2002), 심리학에서는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Kohlberg(1969)가 사용한 도덕적 딜레마에서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부당한 수단(예, 하인츠 이야기에서 약을 훔치는 것)을 다루고 있지만 그의 관심은 도덕적 판단의 양식(칭찬이나 비난에 근거한 판단인가 의무에 관한 판단인가, 권리에 관한 판단인가 등)에 있었기 때문에 도덕판단에서 행위의 결과, 행위자의 의도, 및 수단의 정당성 간의 관계를 살피지는 않았다.

개인이 선택한 수단의 중요성은 2004년 대학입시부정 사건이나 황우석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개인의 바람이나 의도 또는 목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에게 달려있다. 목표를 달성하는 적절한 방법과 부적절한 방법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결정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수단을 결정하는 데에 개인의 도덕적 가치가 개입된다고 할 수 있다(Mullen & Roth, 1991; Rescher, 1988).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많은 도덕적 문제는 편법이나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도와 결과정보 이외에 수단정보를 추가하여, 어린 아동들의 도덕판단이 수단의 정당성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도덕판단에서 수단의 정당성을 포함시켰다는

것이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큰 차이점이라 하겠다.

수단의 정당성은 의도가 좋지만 수단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제기되는 문제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야기 속 주인공은 모두 우는 친구를 달래려는 좋은 의도를 지닌 주인공으로 묘사되었다. 수단의 정당성 여부(정당한 수단 대 부당한 수단)와 결과 유형(긍정적 결과 대 부정적 결과)을 조합한 네 가지 이야기를 제시하여 아동들이 이야기 속 주인공을 얼마나 착한지/나쁜지, 그리고 얼마나 상/벌을 주는지 살펴본 결과, 3세, 4세 그리고 5세 아동 모두가 결과보다 정당한 수단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아동들은 도덕판단에서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연구 결과는 어린 아동들이 결과 정보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당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아동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주인공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주인공보다 더 착하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3세, 4세, 및 5세 아동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이 도덕판단에서 결과를 고려하고 있음을 반영해준다.

수단의 정당성이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 아동들이 결과정보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문제는 어린 아동들조차 결과정보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도 정보와 결과정보만을 조합하여 3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김시은, 정영숙, 2000), 모든 아동들은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보다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에 선한 의도와 나쁜 의도 간에 도덕성판단(착하다/나

쁘다)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어린 아동들이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결과에 다소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의도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에는 3세 아동이 선한 의도와 나쁜 의도간에 구분을 하지만,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결과도(Costanzo et al., 1973; Nelson, 1980) 어린 아동들이 부정적 결과에 압도되긴 하지만, 그래도 의도를 고려하여 도덕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3세 아동의 의도 유형에 따라 도덕판단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Costanzo et al., 1973; Nelson, 1980)와는 달리, 한국의 3세 아동은 나쁜 의도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주인공을 매우 나쁘다고 평가하였으나, 부정적 결과가 초래되었다 할지라도 그 의도가 선한 주인공은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상·벌 판단에서도 한국의 3세 아동은 선한 의도로 긍정적 결과를 초래한 주인공에게는 상을 많이 주어야 한다고 평가한 반면에, 나쁜 의도로 긍정적 결과를 초래한 주인공에게는 벌을 많이 주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을지라도 그 의도가 선한 주인공에게는 아주 약간의 벌만 배정함으로써, 상벌을 주는데 있어 결과보다는 의도를 더 중시하였다. 어린 아동들이 도덕판단에서 결과와 의도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느냐는 문화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앞으로의 연구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수단이 개입되는 상황에서 3세 정도의 어린 아동들이 어떻게 도덕판단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 본 연구 결과는 아동들이 결과보다는 정당한 수단이나 아니냐에 의해 도덕판단이 더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3세, 4세, 및 5세 아동들이 모두 정당한 수단을 사용한 주인공은 결과에 관계없이 모두 착하고 상을 주어야 한다고 평가한 반면, 부당한 수단을 동원한 주인공은 결과에 관계없이 나쁘고, 벌을 주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들이 의도나 결과보다는 정당한 수단을 사용한 것이냐가 도덕판단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을 지지해 주는 자료는 아동들이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 상이나 벌을 주어야 할 이유 분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긍정적 결과를 초래한 주인공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고 응답한 아동들은 그 이유를 주로 “친구를 달래기 위해 자신이 아끼는 장난감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60명 중 42명).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단을 사용하였으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아동에게도 거의 대부분의 아동들이 상을 주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 역시 “친구를 달래기 위해 자신이 아끼는 장난감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56명 중 45명). Piaget(1932)의 주장처럼 취학전 어린 아동들이 긍정적 결과(“울음을 그치게 해서”)를 초래했기 때문에 상을 주어야 한다고 응답한 아동은 60명 중 1명뿐이었다. 어린 아동들이 결과보다 의도를 중시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 “친구를 달래려 했기 때문”(선한 의도)에 상을 주어야 한다고 응답한 아동이 60명 중 11명이나 되어, “울음을 그치게 해서” 상을 주어야 한다는 결과 중심의 응답보다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았다. 그러나 자신의 장난감을 주는 좋은 수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을 주어야 한다는 응답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훨씬 낮았다.

부당한 수단을 사용한 주인공에게 벌을 주어야 하는 이유 분석에서도 아동들은 벌을 주어야 하는 이유로 주로 부당한 수단을 지적하였다. 즉,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여 긍정적 결과를 초래한 주인공에게 벌을 주어야 하는 주된 이유는 “다른 친구의 장난감을 빼앗아서”이었다(51명 중 46명).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여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주인공에 벌을 주어야 할 이유 역시 “다른 친구의 장난감을 빼앗아서”이었다(54명 중 50명). 결과에 해당되는 “울음을 그치지 않아” 벌을 주어야 한다고 응답한 아동은 2명뿐이었다.

상이나 벌을 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3세 아동들은 결코 결과에만 의존하여 도덕판단을 하지 않으며, 의도에만 의존하여 도덕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는 의도나 결과보다는 주인공이 사용한 수단(자신이 아끼는 장난감을 주는 경우 대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아 주는 경우)에 의해 도덕판단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았음을 암시해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의도(친구를 달래려 함)와 결과(친구가 울음을 그친 것 대 계속 우는 것) 그리고 수단(자신의 장난감을 준 것 대 남의 장난감을 빼앗아 준 것) 정보 중 어린 아동들이 수단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은 제공된 수단정보가 가장 두드러진 정보였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남의 것을 빼앗아’(부당한 수단) 주었다는 것은 그 어떤 정보를 능가하는 강력한 정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후속 연구에서 의도를 더 부각시키거나 결과를 지각적으로 더 부각시키는 보완을 통해, 어린 아동이 도덕판단에서 정말로 수단의 정당성을 중시하는 것인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덕판단에서 의도와 결과 그리고 수단을 고려하는 것이 갖는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논의를 끝마치고자 한다.

Piaget(1932)와 Kohlberg(1969)와 같은 인지주의적 도덕발달이론가들은 도덕규칙에 관한 개념화 방식에서 연령에 따라 질적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며(도덕판단 수준 또는 단계), 도덕판단 수준이 도덕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될 것으로 가정한다. Piaget와 Kohlberg에 따르면, 취학전 아동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 근거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벌을 받지 않으면 그 행위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가장 낮은 도덕판단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다. 어린 아동들이 정의나 평등, 인간 존엄성에 대한 성숙한 개념화가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낮은 도덕판단 수준에 있는 취학전 아동에게 적절한 도덕교육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가?

마음이론가들에 의하면, 3~4세 쯤 아동들은 의도개념이 생기고, 바램이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Flavell, Miller, & Miller, 2002; Shultz, 1980; Wellman, 1990). 어린 아동이 행동의 원인으로 의도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면, 보이지 않는 의도를 고려하여 도덕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취학전 어린 아동들(3세~6세)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들에서 3세 정도의 아

동도 결과만을 고려하여 도덕판단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시은, 정영숙, 2000; Armsby, 1971; Baldwin & Baldwin, 1970; Costanzo, Coie, Grumet, & Farnill, 1973; Nelson, 1980; Nelson-Le Gall, 1985). 수단의 정당성을 개입시킨 본 연구에서는 결과보다 수단의 정당성이 3세 아동의 도덕판단에 더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세 정도의 아동들이 도덕판단을 할 때, 의도와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면,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도덕교육에서도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와 그 행위가 바람직한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으로 하여금 도덕 판단과 관련된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유아교육에서 도덕적 인지(도덕 판단), 도덕적 감정, 그리고 도덕적 행동의 세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통합적인 도덕교육의 필요성이 제안되면서(Lickona, 2001), 유아들을 대상으로 이 방향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김진아, 임정혜, 2006), 이는 어린 아동들을 도덕적으로 보다 유능한 존재로 보고자 하는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결과를 산출하는데 사용된 수단이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가 3세 아동의 도덕 판단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런 경향이 나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를 살피는 것이 흥미로운 연구주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인지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청소년이나 성인들에게서 편법을 동원한 일들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수단의 정당

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을 하다가, 점차 현실을 접하고 나이가 들면서 편법의 유혹이나 개인적 이익 추구로 인해 오히려 수단의 정당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주제는 경험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연, 하영희 (2003). 죄책감, 도덕적 이탈, 및 친구의 규칙위반 성향과 청소년의 규칙위반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2), 39-52.
- 김경희 (1999). 아동과 청년의 사회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 -정직과 친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2(1), 14-24.
- 김경희 (2006).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긍정적 정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9(1), 29-46.
- 김경희 (2004). 한국과 독일 대학생의 도덕적 정서에 관한 개념화 연구: 긍정적 정서로서의 도덕적 정서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2), 1-18.
- 김기상 (1997). 행위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6, 5-45.
- 김상윤 (1989). 인지적 도덕발달이론에서 단계별 특성에 따른 도덕성발달 경향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시은, 정영숙 (2000). 도덕판단에서 취학전 아동의 의도사용과 의도성 구분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3(1), 49-64.
- 김안중, 박철환, 신계철, 조난심 (1982). 한국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진아, 임정혜 (2006).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행동의 관계. *아동학회지*, 27(2), 85-100.
- 노영란 (2002). 도덕성의 합리적 이해. 서울: 철학과 현실사.

- 박영신 (1999).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2), 11-23.
- 박영신 (2001). 한국아동들의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의 발달과 그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83-104.
- 백혜정, 이순목 (2004). 세 집단간의 비교를 통하여 본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도덕지향에 대한 연구: Kohlberg 의 도덕발달단계 및 도덕지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1), 79-93.
- 최보가, 송미화 (1996). 유아의 도덕적 및 인습적 규칙에 관한 판단. *대한기정학회지*, 34(4), 49-62.
- Armsby, R. E. A. (1971). A reexamination of the development of moral judgement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2, 1241-1248.
- Baldwin, C. P., & Baldwin, A. L. (1970). Children's judgments of kindness. *Child Development*, 41, 29-47.
- Chandler, M. J., Greenspan, S., & Barenboim, C. (1973). Judgments of intentionality in response to videotaped and verbally presented moral dilemmas: The medium is the message. *Child Development*, 44, 315-320.
- Costanzo, P. R., Coie, J. D., Grumet, J. F., & Farnill, D. (1973). A re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intent and consequence on children's moral judgements. *Child Development*, 44, 154-161.
- Farnill, D. (1974). The effects of social judgment set on children's use of intention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42, 276-289.
- Flavell, J. H., Miller, P. H. & Miller, S. A. (2002). *Cognitive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 Freud, S. (1968). *New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London: Hogarth. (Original work published 1933)
- Gutkin, D. C. (1972). The effect of systematic stories changes on intentionality in children's moral judgement. *Child Development*, 43, 187-195.
- Hebble, P. W. (1971). The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judgement of intent. *Child Development*, 42, 1202-1215.
- Kohlberg, L. (1963). Moral development and identification. In H. W. Stevenson (Ed), *Child psychology: 62nd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pp.277-33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ohlberg, L. (1969).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D. Goslin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pp.347-480). Chicago: Rand McNally.
- Lickona, T. (2001). What is good character? and how can we develop it in our children? *Reclaiming Children and Youth*, 9(4), 239-251.
- MacRae, D., Jr. (1954). A test of Piaget's theories of moral judgemen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9, 14-18.
- Mullen, J. D. & Roth, B. M. (1991). *Decision Making: Its Logic and Practice*. Savage,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
- Nelson, S. A. (1980). Factors influencing young children's motives and outcomes as moral criteria. *Child Development*, 51, 823-829.
- Nelson-Le Gall, S. A. (1985). Motive outcome matching and outcome foreseeability: Effect on attribution of intentionality and moral judgem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332-337.
- Peterson, C., Peterson, J., & Finley, N. (1974). Conflict and moral judg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10, 65-69.
- Piaget, J. (1932). *The moral judgment of child*. London: Kegan Paul.
- Rescher, N. (1988). *Rationality*. Oxford: Clarendon Press.
- Rule, B. G., & Duker, P. (1973). Effects of intentions

- and consequences on children's evaluation of aggress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 184-189.
- Shultz, T. R. (1980).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intention. In S. A. Collins(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Hillsdale, NJ: Erlbaum.
- Skinner, B. F. (1971). *Beyond freedom and dignity*. New York: Knopf.
- Wellman, H. M. (1990). *The Child's theory of mind*. Cambridge, MA: Bradford Books.
- Zelazo, P. D., Helwig, C. C., & Anna, L. (1996). Intention, act, and outcome in behavioral prediction and moral judgment. *Child Development*, 67, 2478-2492.
-

1차 원고 접수 : 2006. 10. 15

수정 원고 접수 : 2006. 11. 22

최종게재결정 : 2006. 11. 27

K C I

Preschooler's use of fair means or foul means in moral judgment

Youngsook Chong

Youngmi Cho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young children's differential use of a fair means or foul means in moral judgment. Sixty preschoolers age from three to five were presented four stories combined means(fair vs foul) and outcome(positive vs negative). Subjects were asked to judge the goodness or badness of each character in the four stories on four point scale. they were also asked to assign prize or punishment to the character. Results showed that children as young as three can use differentially a fair means vs a foul means for making moral judgment: Young children including three-year olds rated a character using fair mean as much better and a character using foul means as much worse irrespective of types of outcome. Similar pattern was found in children's prize/punishment assignment. It was discussed the consideration for the importance of fair means in moral judgment.

Keywords: moral judgment, fair means vs foul means, preschooler